

사회탐구 영역(윤리)

제 4 교시

성명

수험번호

1

- 먼저 수험생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 반드시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를 풀어야 합니다.
-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시오.
- 답안지에 수험 번호, 선택 과목, 답을 표기할 때에는 반드시 ‘수험생이 지켜야 할 일’에 따라 표기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씩입니다.

1. 다음 글에 나타난 인간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07년 ○월 ○일

오늘은 일찍 서둘러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반 고흐에서 피카소까지’라는 미술전을 관람했다. 이름만 들어도 가슴 설레는 서양 미술 거장들의 명작 94점을 국내에서 감상할 수 있어 너무 좋았다. 오후에는 야간 스키를 타기 위해 △△스키장을 찾았다. 잘 정돈된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며 그 동안 느끼지 못했던 스피드를 즐겼다. 오늘은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하루였다.

- ① 본능적 존재 ② 도구적 존재 ③ 유희적 존재
 ④ 윤리적 존재 ⑤ 사회적 존재

2. 다음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관점을 <보기>에서 고르면? [3점]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어린 아이가 우물 속으로 빠지려고 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자. 이런 광경을 보면 누구를 막론하고 불쌍하고 애처로운 마음이 일어날 것이다.

< 보기 >

- ㄱ. 인간의 본성은 백지(白紙)와 같다.
 ㄴ. 인간의 본성에는 인의(仁義)의 단서가 들어있다.
 ㄷ. 선한 본성은 후천적으로 환경이나 교육을 통해 형성된다.
 ㄹ. 우주 만물의 이치를 부여받아 인간은 선한 본성을 지닌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 다음에서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이상 사회를 구현하는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큰 도[大道]가 행해지고 어진 사람과 능력 있는 자가 버려지지 않으며, 노인은 자기의 생을 편히 마치며, 젊은이는 모두 일할 수 있고 노약자·병자·불쌍한 자들이 부양되며, 길에 재물이 떨어져도 줍지 않는 세상이다.

- 예기(禮記) -

- 이성의 덕을 가진 철인 통치자가 용기의 덕을 가진 군인 계급의 도움을 받아 절제의 덕을 가진 생산자 계급을 다스릴 때 정의로운 국가가 이루어진다.

- 국가 -

- ①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본분과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② 각자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를 받아야 한다.
 ③ 인위적 가식과 위선에서 벗어나 인간의 본성을 회복해야 한다.
 ④ 정치 공동체가 직접 민주주의에 의해 스스로를 다스려야 한다.
 ⑤ 모든 정치적 규율을 거부하고 국가의 강제 수단을 철폐해야 한다.

4. (A)와 관계 깊은 덕목을 <보기>에서 고르면?

※자아실현을 위한 조건

1. 심신의 건강 - 규칙적인 생활과 적당한 운동으로 유지
2. (A) - 주어진 충동과 욕망을 적절히 조절
3. 창의적 사고방식 - 새로운 가능성을 실현하려는 노력
4. 사회 정의의 실현 - 조화로운 사회 질서 유지
5. 인류 평화 구현 - 지구촌 공동체에 대한 인류애 실천

< 보기 >

- ㄱ. 동학의 인내천(人乃天)
 ㄴ. 동양의 순천절물(順天節物)
 ㄷ.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中庸)
 ㄹ. 단군 신화의 홍익인간(弘益人間)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

사회탐구 영역(윤리)

5. 다음 내용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덕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우리나라에는 현묘한 도가 있으니 이를 풍류라고 한다. 이 풍류 사상은 유교와 불교와 도교를 포함한 것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교화시켰다.
- 정책의 지향이 아래를 향했다고 해서 반드시 정당한 것만은 아니다. 아래를 감싸 안으면서 위로도 통하는 사회가 선진 자본주의가 지향해야 할 공동체이다.

- ① 책임 의식 ② 조화 정신
 ③ 창조 정신 ④ 준법 정신
 ⑤ 주인 의식

6. 다음 ‘갑’과 ‘을’이 주장하는 사회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갑은 자유주의·보수주의 이념의 기초이다.
 ② 갑은 인간의 역사를 추상적 원리로 제시한다.
 ③ 을은 인간의 역사를 계급 간의 갈등으로 설명한다.
 ④ 을은 인간의 생산 활동을 토대로 사회현상을 규정한다.
 ⑤ 을에 비해 갑은 사회주의라는 이상 사회의 토대를 제공한다.

7. 다음 인간관에서 강조하는 삶의 자세를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규범적 측면에서 인간다움을 찾으려는 윤리적 인간관
-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하늘의 기품과 땅의 형상을 가장 완벽하게 부여받은 중간적 존재

〈 보기 〉

- ㄱ. 군자(君子)의 경지를 추구하기 위해 수양을 쌓는다.
- ㄴ.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에게 자비를 베푼다.
- ㄷ.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의 오상(五常)의 덕을 몸에 익힌다.
- ㄹ. 무위(無爲)의 자연스러움 속에서 인간 본연의 모습을 찾는다.
- ㅁ. 무지(無知)와 탐욕(貪慾)을 버리고 보살행(菩薩行)을 실천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8. 다음 (가), (나)의 ‘하늘[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가) 노자는 “하늘은 어질지 않아 인간을 포함한 만물을 마치 ‘짚으로 만든 개’처럼 취급한다.”라는 구절을 통해 자연은 그저 자연일 뿐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 (나) 『중용』에서는 “성실은 하늘의 도(道)이고, 성실하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도”라 하여 이를 절대적인 원리로 보았다.

- ① (가)에서는 하늘을 도덕 규범으로 본다.
 ② (가)에서는 하늘을 자연 그 자체로 본다.
 ③ (나)에서는 하늘의 도와 인간의 도가 다르다고 본다.
 ④ (나)에서는 하늘을 사람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 (가)와 (나)는 하늘을 권선징악의 주재자(主宰者)로 본다.

9.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3점]

동그런 모양이나 네모진 모양의 그릇에 담긴 내용물이 동그랗다거나 네모지다고는 할 수 없다. 어떤 모양의 그릇에 담기더라도 그 내용물은 언제나 동일하다. 그 모양은 기국(氣局)이고 내용물의 동일함은 이통(理通)이다.

〈 보기 〉

- ㄱ.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을 주장하였다.
- ㄴ. 실학 사상의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 ㄷ. 정치·교육·국방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을 도모하였다.
- ㄹ. 인간을 현실성과 개체적 자율성에 근거하여 파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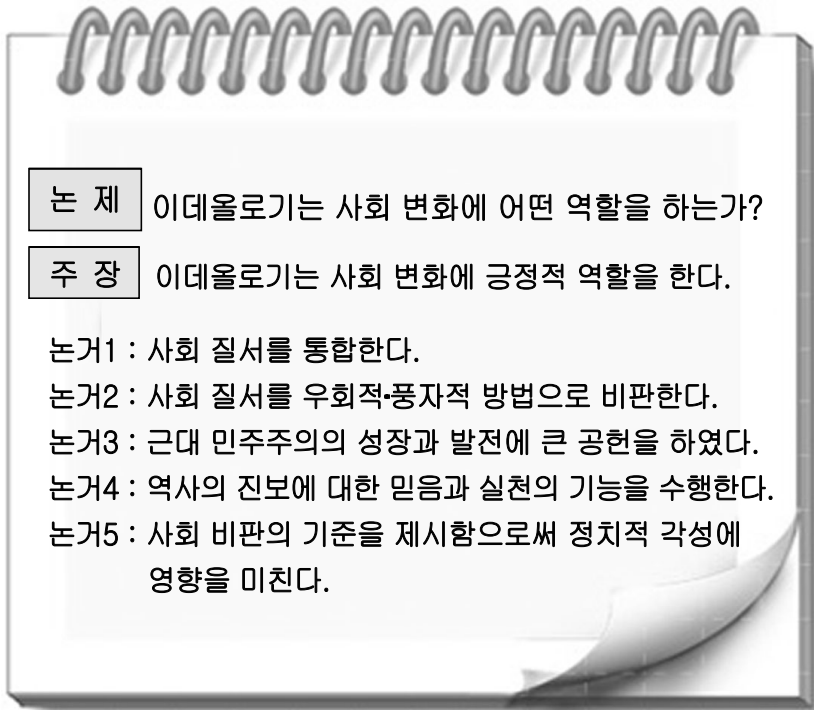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가) 사상을 토대로 (나)와 같은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가) 모든 현상이 무수한 원인[因]과 조건[緣]에 의해 서로 관련되어 생겨나며, 원인과 조건이 없으면 결과도 없다.
- (나) 우리는 종종 혼자 사시는 노인이 돌아 가셨는데 옆 집에 사는 사람이 오랫동안 그 사실을 모르고 지냈다가, 많은 사람들이 눈 앞에서 벌어지는 폭행사건을 방관했다는 소식을 접한다. 이제는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을 넘어 아예 무덤덤해하는 사람도 생겨나고 있다.

- 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바라밀(波羅蜜)을 실천한다.
 ② 자신의 사욕을 버리고 예를 따르는 극기복례를 내면화한다.
 ③ 내 마음을 미루어 남에게 미치는 서(恕)의 정신을 함양한다.
 ④ 끊임없는 수양을 통해 악한 본성을 변화시켜 선하게 만든다.
 ⑤ 인간은 한울님을 모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모두 귀하게 여긴다.

11. 다음은 논술문을 작성하기 위한 개요이다. 글의 흐름에서 벗어난 논거는? [3점]



- ① 논거1 ② 논거2 ③ 논거3 ④ 논거4 ⑤ 논거5

12. 다음에서 강조하는 삶의 자세로 가장 적절한 것은?

‘상에 머무르지 않는 보시’(無住相布施)라는 말이 있다. ‘보시’란 남에게 내 것을 베풀어 준다는 뜻이며, ‘상(모양)에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내 것을 누구에게 주었다는 생각조차도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 ①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오직 신앙을 통해 절대자에게 귀의한다.
- ② 자신의 정신 세계에 몰입하여 사회와 분리된 개인의 해탈을 추구한다.
- ③ 성인이 되기 위해 도덕적 실천과 함께 이론적 탐구로써 지식을 확충한다.
- ④ 자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너와 나를 하나로 여기고 나보다 남을 위해 봉사한다.
- ⑤ 천리(天理)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사욕(私慾)을 극복하고 인간의 순수한 본래성만을 유지한다.

13. 다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태도는?

인류는 스스로 추구하고 있는 발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 다만 ‘더 빨리, 더 많이, 더 높이’와 같은 외면적 물량주의에 빠져 앞으로만 치닫고 있을 뿐이다.

- ① 행복의 제 1조건을 물질적 풍요와 생활의 안정으로 삼는다.
- ② 자신의 실존적 조건을 외물(外物)에 근거를 두고 파악한다.
- ③ 참다운 자아실현을 위하여 타자화(他者化)된 삶을 추구한다.
- ④ 삶의 조건인 객관적 지표의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 ⑤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진지하게 성찰한다.

14. (가)의 관점에서 (나)의 주장에 대해 비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3점]

(가) 하늘은 저절로 높고 땅은 본래 두터우며, 해와 달은 저절로 빛나고 별도 스스로 빛난다. 그런데 거기에 다시 인의(仁義)를 말할 필요가 있는가? 그것은 마치 북을 억지로 세게 두들겨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 하는 무모한 짓과도 같다.
(나)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타고난 내면적 도덕성인 인(仁)과, 외면적인 사회 규범인 예(禮)를 회복해야 한다.

- ① 차별적인 사랑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 ② 질서 유지를 위한 외적인 규제의 필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 ③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한 인간다움의 실현을 소홀히 하고 있다.
- ④ 안정된 국가를 만들기 위한 강력한 법의 필요성을 소홀히 하고 있다.
- ⑤ 만물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는 무위(無爲)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15. 다음 글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전통과 현대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하나의 나무에서 꽃이 피고 잎이 돌아나며 열매가 맺는 것은 계절의 변화에 따라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이처럼 때에 맞는 변화를 가져오는 원동력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땅속으로 깊이 뻗어 내린 뿌리가 물과 영양분을 섭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 < 보 기 > —

- ㄱ. 전통은 열매에, 현대는 뿌리에 비유할 수 있다.
- ㄴ. 전통과 현대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 ㄷ. 전통은 일시적인 것이며, 현대는 지속적인 것이다.
- ㄹ. 전통은 안정적 기반을, 현대는 변화하는 현실을 의미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6. 다음 글에 나타난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 조상들은 효(孝)의 실천을 강조한 나머지 남의 아버지보다 내 아버지, 남의 가문이나 조상보다 나의 가문이나 조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풍조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 ① 나와 남을 구분하지 않는 자타불이를 실천한다.
- ② 종친회를 활성화하여 가족적 유대 의식을 강조한다.
- ③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 인간의 자세를 지닌다.
- ④ 남의 부모도 자기 부모처럼 섬기라는 겸애를 실천한다.
- ⑤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박애 정신을 함양한다.

17. 다음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만물은 먼저 마음[心]이 있는 연후에 이(理)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비로소 효도의 이(理)가 있는 것이며, 임금에게 충성하는 마음이 있어야 비로소 충성의 이(理)가 있는 것이다.

(나)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포함한 세계의 참모습에 대하여 밝게 알아야 하며, 양심을 보존하고 본성을 함양하면서 나쁜 마음이 스며들지 않도록 잘 살피서 단호하게 물리쳐야 한다.

- ① (가)는 타고난 참된 앎[良知]을 통한 실천을 중시하였다.
- ② (가)는 도덕적 실천과 함께 이론적 확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③ (나)는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태도로 학문에 임할 것을 강조하였다.
- ④ (나)는 인식의 지(知)와 실천의 행(行)이 본래 하나라고 주장하였다.
- ⑤ (나)에 비해 (가)는 인간을 화성기위(化性起僞)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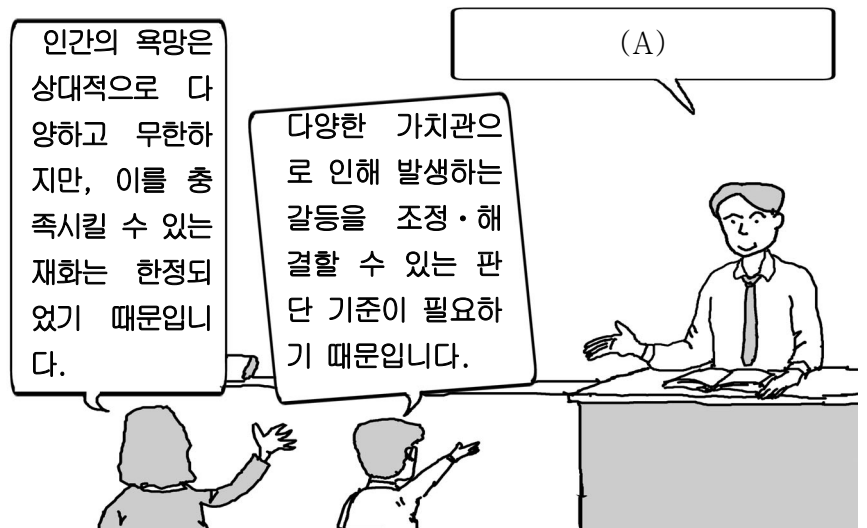
18. 다음 사상가의 관점과 일치하는 주장으로 타당한 것은? [3점]

전에 내가 꿈에 나비가 된 적이 있었다. 그 때는 분명히 훨훨 나는 나비로서 스스로 만족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내가 장자인 줄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갑자기 꿈을 깬 뒤에 보니 엄연히 장자였다. 나는 꿈에 나비가 되었던 것인가? 아니면 나비의 꿈에 현재의 내가 되어 있는 것인가? 나비와 나는 차이가 있을 터지만 알 수가 없다. 내가 하나의 자연물로 되어버린 것이다.

- 제물론 -

- ① 인간의 본성은 선한 것도 선하지 않은 것도 없다.
- ② 인간은 이기적이라 오직 상과 벌로써 조종할 수 있다.
- ③ 집착과 탐욕을 없애므로써 열반의 세계에 도달해야 한다.
- ④ 모든 사물을 차별화하지 않는 정신적 자유의 경지를 지향해야 한다.
- ⑤ 자신을 사랑하듯이 남을 사랑하라는 무차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19. 그림은 수업의 한 장면이다. 교사의 질문 (A)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사회 운동의 발생 원인은 무엇입니까?
- ② 인간 사회에서 문화가 성립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③ 사회적 삶에서 윤리 규범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④ 인간이 도구적 존재라고 규정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⑤ 인간의 개체성이 사회성에 선행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20. 다음 (가)의 원리로 (나)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가) 모든 종파, 모든 사상을 분리시켜 고집하지 말고, 보다 높은 차원에서 하나로 종합해야 한다.
 (나) 지구상에는 다양한 종교가 존재한다. 서로 다른 종교의 상반된 윤리가 사회적으로 충돌하면 종교 간의 갈등이나 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 보기 >

- ㄱ. 타 종교와 구분되는 종교적 특수성을 심화시킨다.
- ㄴ. 종교적 화합의 출발점을 특정 종교로부터 찾는다.
- ㄷ. 다른 사상이나 종교를 포용하는 열린 자세를 가진다.
- ㄹ. 사상이나 종교의 궁극적 지향점이 다르지 않음을 인식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확인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